

유란시아서

<< [제 150 편](#) | [부분](#) | [내용](#) | [제 152 편](#) >>

제 151 편

바닷가에서 머무르며 가르치다

151:0.1 (1688.1) 3월 10일이 되자, 전도하고 가르치는 모든 집단이 **벳세다**에 모여들었다. 목요일 밤과 금요일에 그들 중에 여럿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한편 안식일에 **다마스쿠스**에서 온, 어느 나이 든 **유대인**이 조상 **아브라함**의 영광에 대하여 강연하는 것을 들으려고 그들은 회당에 참석했다. **예수**는 이 안식일의 대부분을 혼자서 산에서 지냈다. 그 토요일 밤에 주는 모여든 무리에게 “역경의 역할과 실망의 영적 가치”에 대하여 한 시간이 넘도록 이야기했다. 이것은 기억할 만한 경우였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눠준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151:0.2 (1688.2) **예수**는 **나사렛**에서 최근에 거절당한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사도들은 여느 때처럼 즐거운 태도에 섞인 그의 특이한 슬픔을 알아차렸다. **야고보**와 **요한**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와 함께 있었고, **베드로**는 새 전도단의 복지와 지도에 관계되는 여러 책임에 몰두하여 여념이 없었다. 여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떠나기 전에 이 기다리는 시간을 이집 저집 찾아다니며, **가버나움**과 그 주위의 여러 도시와 마을의 병자들을 돌보면서 보냈다.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51:1.1 (1688.3) 이 무렵에 **예수**는 주위에 무척 자주 모여드는 군중을 비유로 가르치는 방법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예수**가 사도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밤이 늦도록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일요일 아침에 그 무리 중에 거의 아무도 아침을 먹으려고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바닷가로 나가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전에 고기잡이하던 배, 언제나 그가 뜻대로 쓰도록 둔 배 안에서 **예수**는 혼자 앉아 있었고, 하늘나라를 펼치는 일을 하는 데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하여 명상했다. 그러나 주는 오래도록 혼자 있게 되지 않았다. 금방 사람들이 **가버나움**과 이웃의 여러 마을에서 도착하기 시작했고, 아침 10시가 되자 거의 1천 명이 물가에, **예수**의 배 가까이 모여 들었고 주의를 끌려고 아우성을 쳤다. **베드로**는 이제 일어나서, 배 있는 데로 가면서 말했다. “주여, 내가 저희에게 이야기하리이까?” 그러나 **예수**가 대답했다.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리라.” 다음에 **예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로소 말씀했고, 이것은 따라다닌 군중에게 가르친 비유, 길게 연속된 그런 초기 비유 중의 하나였다. 이 배에는 높이 세워진 자리가 있었고 물가에 모인 군중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가르칠 때 앉는 것이 버릇이었으므로) **예수**는 거기에 앉았다. **베드로**가 몇 마디 한 뒤에 **예수**는 입을 열었다:

151:1.2 (1688.4) “어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뿌리자,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밭에 짓밟히고 하늘의 새들이 삼키게 되었더라. 다른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밭에 떨어졌고, 흙이 깊지 않으매 즉시 싹이 났으나 해가 비치자마자 물기를 빨아들일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더라. 다른 씨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져서 가시나무가 자라자 그 씨가 숨이 막혀 전혀 결실하지 못하였더라.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자라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 결실하였더라.” 이 비유 말씀을 마치고 나서 군중에게 말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1:1.3 (1689.1) 사도들, 그리고 함께 있던 자들은, **예수**가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서 크게 어리둥절하였다: 자기들끼리 많이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날 저녁 **세베대**의 집 뜰에서 **마태**가 **예수**에게 말했다: “주여, 군중에게 당신이 제시하는 아리송한 말씀의 뜻이 무엇이나이까? 진실을 찾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는 대답했다:

151:1.4 (1689.2) “내가 이제까지 참으며 너희를 가르쳤노라.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군중과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신비를 비유로 제시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리니, 정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자는 그 가르침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서 구원을 얻으며, 한편 다만 우리를 옹아매려고 귀를 기울이는 자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까닭에 저희가 더욱 어리둥절하게 될까 함이라. 아이들아, 너희는 영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느냐. 가진 자는 받아서 풍부하게 되겠으나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기리라, 그 법칙이 선포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리니, 우리의 친구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자는 찾는 것을 찾아내겠으나, 한편 우리의 적과 진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럿이 진실의 길을 따르지 않느니라. 선지자가 ‘이 민족의 마음은 둔해졌고

귀는 어두워 듣지 못하며, 진실을 헤아리고 마음 속에서 이해할까 두려워 눈을 가렸음이라’ 하였을 때, 정말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묘사하였느니라.”

151:1.5 (1689.3) 사도들은 주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가 완전히 알아듣지 못했다. **안드레와 토마스**가 **예수**와 함께 더 이야기하는 동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뜰의 다른 구석으로 물러가서, 거기서 진지하고 길어진 토론에 들어갔다.

2. 비유의 풀이

151:2.1 (1689.4) **베드로**와 그 주위에 있던 무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화(寓話)이다, 각 모습에 어떤 감추어진 의미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가서 설명해달라 청하려고 작정하였다. 따라서 **베드로**는 주께 다가가서 말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뜻을 깨우칠 수 없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에게 풀이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했다: “이 사람아, 나는 너희에게 주지 않고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먼저 너희가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내게 이르면 어떠하겠느냐, 그 비유를 너는 어찌 풀이하느냐?”

151:2.2 (1689.5) 한 순간 침묵이 흐른 뒤에 **베드로**는 말했다: “주여, 우리는 그 비유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했고, 나는 이렇게 풀이하려고 마음먹었나이다. 씨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나이다. 길 옆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나이다. 굳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빼앗아 간 새들은

사탄 곧 악마를 대표하고, 그는 이 무지(無知)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려진 것을 훔쳐 가나이다. 돌밭에 떨어졌다가 아주 갑자기 솟아나온 씨앗은 겉치레하고 생각이 모자라는 자를 대표하니, 저희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깊이 이해하기까지 진실이 아무런 참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까닭에 저희의 헌신은 시련과 박해에 부닥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나이다. 시련이 닥쳐올 때 이 신자들은 넘어지고 유혹을 받을 때 저버리나이다.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걱정거리와 사람을 속이는 재산으로 하여금 진실의 말씀에 숨통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버려 두는 자를 가리키나이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나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 열매 맺은 씨앗은 진실을 들었을 때 — 저희의 다른 지적(知的) 자질 때문에 — 다른 정도로 이해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며, 따라서 다른 정도로 이 종교적 체험을 드러내는 자들을 대표하나이다.”

151:2.3 (1690.1) **베드로**가 비유를 풀이한 것을 들은 뒤에, **예수**는 다른 사도들도 제안이 없는가 물었다. 이 초청에 오직 **나다니엘**이 응답하여 말했다: “주여, **시몬 베드로**가 그 비유를 풀이한 것에 좋은 점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와 의견이 완전히 같지는 않사옵나이다. 이 비유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사옵나이다: 씨앗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대표하며, 씨 뿌리는 자는 하늘나라의 사자를 나타내나이다. 길가에 굳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전하는 말씀에 관심 없는 자와 마음이 굳어진 자와 더불어, 복음을 조금만 들은 자를 대표하나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채어간 하늘의 새들은 사람의 생활 버릇, 악의 유혹, 육체의 욕구를 나타내나이다. 돌 틈에 떨어진 씨앗은 새로운 가르침을 재빨리 받고, 이 진실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데 생기는 어려움과 그 현실에 부닥쳤을 때 진실을 마찬가지로 재빨리

버리는 감정적인 사람들을 나타내며 저희는 영적 이해가 모자라나이다.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의 진실에 마음이 끌리는 자를 대표하며, 가르침을 따를 생각이 있어도, 인생의 자부심 · 질투 · 시샘, 그리고 인간으로 살면서 생기는 걱정으로 방해를 받사옵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나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 열매를 맺는 씨앗은 다른 자질의 영적 빛을 소유한 남녀들이 진실을 알아듣고 그 영적 가르침에 반응하는 능력, 자연스럽게 정도가 다른 능력을 대표하나이다.”

151:2.4 (1690.2) **나다니엘**이 말을 마치자, 사도들과 그 동료들은 심각한 토론에 빠졌고 진지한 논쟁에 들어갔다. 더러는 **베드로**의 해석이 옳다고 우기고 한편 거의 같은 수가 **나다니엘**의 해석을 옹호하려 했다. 그동안에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물러나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고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힘차고 굳세게 애썼다.

151:2.5 (1690.3) 주는 이 혼란이 가장 심하게 표현될 때가 지나기까지 버려 두었고, 다음에 손바닥을 치고서 그들을 주위에 불렀다. 다시 한번 모두가 주위에 모이자 말했다: “내가 이 비유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누구라도 할 말이 있느냐?” 한 순간 침묵이 흐른 뒤에, **토마스**가 입을 열었다: “예 주여, 내가 몇 마디 하고자 하나이다. 한 번 당신이 바로 이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르신 것을 나는 기억하나이다. 우리가 설교를 위한 예를 들 때, 우리는 우화(寓話)가 아니라 참 이야기를 써야 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라는, 핵심이 되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당한 이야기를 골라야 한다는 것,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용하고 나서, 그 이야기에 들어간 모든 자질구레한 세부를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나이다. 내가 보기에, 이 비유를 풀이하려는

베드로와 나다니엘의 시도는 다 틀렸나이다. 이렇게 하는 저희의 능력을 나는 칭찬하지만, 자연 비유의 모든 세부(細部)가 영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갖게 만들려는 그러한 시도는 무엇이나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비유의 참 목적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을 뿐이라고 나는 똑같이 확신하나이다. 한 시간 전에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따로 두 집단으로 나뉜진 사실이 내가 옳음을 넉넉히 증명하나이다. 두 집단이 이 비유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가졌고, 너무나 열심히 그런 의견을 가져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 비유를 군중에게 발표할 때,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논평하라고 요청했을 때 당신이 생각하고 있던 큰 진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없게 지장을 주나이다.”

151:2.6 (1691.1) **토마스**가 한 말은 모두에게 찬물 끼얹는 효과를 가졌다. 그는 **예수**가 이전에 여러 경우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했다. **예수**가 다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안드레**가 일어나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토마스**가 옳다고 보노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가 무슨 의미를 붙이는지 그가 일러주기를 바라노라.” **예수**가 **토마스**에게 말하라고 손짓한 뒤에 그는 말했다: “형제들아, 나는 이 토론을 길게 끌기를 바라지 않지만, 너희가 바란다면 말하리니, 내 생각에는 한 가지 큰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주가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라. 우리가 아무리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신성한 임무를 집행한다고 하여도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는 성공의 정도가 다르리라는 것, 모든 그런 결과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봉사를 베푸는 상황에 본래부터 있는 조건 때문이요,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거의 또는 도무지 좌우할 수 없느니라.”

151:2.7 (1691.2) **토마스**가 말을 마치고 나서 동료 설교자들의 대다수는 쉽게 동의하려 했다. **베드로와 나다니엘**조차 그와 이야기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가 일어나서 말했다: “잘했도다 **토마스**야, 너는 비유의 참 의미를 헤아렸도다. 그러나 **베드로**와 **나다니엘**이 내 비유로부터 우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위험을 아주 넉넉히 보여주었으니, 저희는 똑같이 잘했느니라. 마음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추측하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 때때로 유익할까 하지만, 대중을 가르치는 일의 일부로서 그런 결론을 제공하려고 애쓸 때 너희는 잘못하느니라.”

151:2.8 (1691.3)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서로의 해석을 축하했다. **알패오** 쌍둥이를 빼고 사도들은 각자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대담하게 풀이해보려고 했다. **가롯 유다**조차도 매우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았다. 열두 사도는 때때로 자기들끼리, 우화를 풀이하듯 주가 말씀하신 여러 비유를 이해하려고 애쓰곤 했지만, 다시는 결코 그런 추측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와 그 동료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계속 대중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이때부터 **예수**가 비유를 점점 더 이용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랬다.

3. 비유에 대하여 더 하신 말씀

151:3.1 (1691.4) 사도들의 머리는 비유에 파묻혀 있었고 너무 지나쳐서 다음 날 저녁 전체가 비유를 더 토론하는 데 쓰였다. **예수**는 저녁 회의를 이 말씀으로 서두(序頭)를 꺼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진실의 발표가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의 지능과 마음에 맞도록 너희는 반드시 가르침을 다르게 해야 하느니라. 다른 지능과 성질을 가진 대중 앞에 설 때, 각 등급의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말씀을 할 수 없으나,

가르침을 전하는 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니라. 무리마다 아니 각 개인조차, 자신의 지적·영적 자질에 따라서 너희의 비유를 제 나름대로 풀이할 수 있느니라. 너희의 빛이 비치게 해야 하지만 지혜롭고 신중하게 그렇게 하여라. 아무도 등불을 켤 때,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불을 받침 위에 두나니, 그곳에서 모두가 그 빛을 볼 수 있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나라에는 밝히지 말라고 감춘 것이 하나도 없고 궁극에 알려서는 안 될 비밀이 하나도 없느니라. 궁극에는 이 모든 것이 빛에 드러나리라. 군중, 그리고 군중이 어떻게 진리를 듣는가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자신에게 눈을 돌리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일렀음을 기억하라: 가진 자는 더욱 받겠고 가지지 않은 자는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151:3.2 (1692.1) 비유에 대한 이어진 토론, 그리고 그 해석에 관한 계속된 가르침은 현대의 말투로 다음과 같이 간추리고 표현해도 좋다:

151:3.3 (1692.2) 1. **예수**는 복음의 진실을 가르치는 데 꾸며낸 이야기나 우화(寓話)를 쓰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그는 비유, 특히 자연을 소재로 한 비유를 아낌없이 쓰기를 권고했다. 진실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이용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에 있는 것이 “영 실체의 그림자, 획 지나가는 비현실적 그림자”라고 자주 언급했다.

151:3.4 (1692.3) 2. **예수**는 **히브리** 성서로부터 서너 가지 비유를 말씀했고, 이 교육 방법이 온통 새롭지는 않다는 사실에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때부터 계속 이용한 바와 같이, 비유는 거의 새로운 교육 방법이 되었다.

151:3.5 (1692.4) 3. 사도들에게 비유의 가치를 가르치면서, **예수**는 다음 몇 가지에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151:3.6 (1692.5) 비유는 방대하게 다른 수준의 지성과 영에게 동시에 호소할 수 있게 한다. 비유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분별력을 요구하며 비판하는 생각을 촉진시킨다. 비유는 적대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해를 촉진시킨다.

151:3.7 (1692.6) 비유는 아는 것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는 경지까지 나아간다. 비유는 영적이고 초물질인 것을 소개하는 수단으로서, 물질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을 이용한다.

151:3.8 (1692.7) 비유는 치우치지 않은 도덕적 결정을 내리기 쉽게 만든다. 비유는 많은 편견을 피하고 새로운 진실을 품위 있게 머리 속에 받아들이게 하며, 개인적으로 분개하는 자기 방어를 최소로 줄이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룬다.

151:3.9 (1692.8) 비유의 유사한 점에 담긴 진리를 물리치는 것은 의식하여 머리 쓰는 것이 요구되며, 이것은 사람의 정직한 판단과 정당한 결정을 직접 무시한다. 비유는 듣는 감각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151:3.10 (1692.9) 비유 형태의 가르침을 쓰는 것은 그 선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아니 놀랍기도 한 진리를 내놓게 만들며, 한편 동시에 어떤 논쟁도, 그리고 전통과 확립된 권한과 겉으로 부딪치는 것을 대체로 피한다.

151:3.11 (1693.1) 비유는 또한 나중에 똑같은 익숙한 장면과 마주칠 때,

가르친 진리를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이점을 가진다.

151:3.12 (1693.2) 이 방법으로 **예수**는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을 가르칠 때 어째서 점점 더 비유를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가 알게 하려고 애썼다.

151:3.13 (1693.3) 저녁 수업이 끝날 무렵에, **예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처음으로 논평했다. 그 비유가 두 가지를 언급한다고 했다: 첫째로, 그 비유는 그때까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평가였고, 땅에서 여생 동안에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예측한 것이었다. 둘째로,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도들, 그리고 다른 하늘나라 사자들이 대대로 봉사하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넉넉히 암시한 것이었다.

151:3.14 (1693.4) **예수**는 또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세심한 노력에 대하여 가능한 최선의 반박으로서 비유를 쓰는 데 의존했는데, 이들은 그가 한 일이 모두 악령과 악마 임금의 도움을 얻어서 행해졌다고 가르쳤다. 모든 자연 현상이 영적 존재들과 초자연 물력의 직접 행위로 생긴 산물이라고 그 시절의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자연에 호소하는 것은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 교육 방법을 택한 것은 또한 그로 하여금 더 나은 길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였고, 동시에 적들이 기분 상하여 그를 고발할 구실을 찾을 기회를 줄이기 때문이었다.

151:3.15 (1693.5) 밤 동안에 그 무리를 해산하기 전에, **예수**는 말했다: “이제 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지막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고자 하노라: 하늘나라는 또한 땅에 좋은 씨앗을 던지는 사람과 같으니라. 밤에는 자고 낮에 일에 몰두하는 동안 그 씨가 싹트고 자랐고, 비록 어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으나 그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 처음에 잎이 나고 다음에 이삭이, 다음에 이삭에서 익은 알곡이 생겼더라. 다음에 곡식이 익었을 때 낫을 휘둘렀고 추수가 끝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1:3.16 (1693.6) 여러 번 사도들은 머리 속에서 이 말씀을 숙고해보았지만, 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덧붙인 이 말씀을 더 언급하지 않았다.

4.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다른 여러 비유

151:4.1 (1693.7) 이튿날 **예수**는 다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했다: “하늘나라는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가 자는 동안, 적이 와서 밀 사이에 잡초를 뿌리고 서둘러 사라졌고, 그래서 어린 잎이 솟아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으려 했을 때 잡초들도 또한 생겼더라. 그러자 이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당신이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잡초들이 생기나이까?’ 그가 종들에게 대답하되, ‘적이 이 일을 하였도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묻되, ‘우리가 나가서 이 잡초들을 뽑아 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더라. ‘아니라, 잡초들을 모으면서 너희가 밀까지 뿌리를 뽑을까 두려우니라. 차라리 거둘 때까지 모두 자라게 버려 두라. 그때 거두는 사람들에게 이르리니, 가서 먼저 잡초들을 모으고 다발로 묶어 불태우고, 다음에 밀을 거두어 내 창고에 저장하라.’”

151:4.2 (1693.8) 사람들이 몇 마디 묻고 난 뒤에 **예수**는 또 다른 비유를 말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 씨앗 같으니라. 자,

겨자씨는 씨들 가운데 가장 적으나, 제대로 자라면, 모든 풀 가운데 가장 크게 되고 나무 같아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쉴 수 있느니라.”

151:4.3 (1694.1) “하늘나라는 또한 누룩과 같으니, 한 여인이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로 세 그릇 속에 감추어 두었고 이 방법으로 가루 전부가 부풀려졌느니라.”

151:4.4 (1694.2) “하늘나라는 또한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한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였더니, 기뻐하면서 그 밭 살 돈을 마련하려고 전 재산을 팔러 갔더라.”

151:4.5 (1694.3) “하늘나라는 또한 참한 진주를 찾고 있는 상인과 같으니, 큰 값어치가 있는 진주를 찾고 나서, 그 특별한 진주를 살 수 있도록 가진 것을 모두 팔려고 나갔더라.”

151:4.6 (1694.4) “또, 하늘나라는 바다 속에 던진 후릿그물 같으니,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거두었더라. 이제, 그물이 찢을 때 어부들이 바닷가에 당겨 놓고, 거기에 앉아서 물고기를 추려내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모으고 나쁜 물고기는 던져 버렸더라.”

151:4.7 (1694.5) **예수**는 많은 다른 비유를 군중에게 이야기하였다. 사실은, 이때 이후로, 이 수단 외에 대중을 가르치는 일이 드물었다. 비유로 공석에서 청중에게 말씀한 뒤에, 저녁 수업 동안에, 그는 사도와 전도사들에게 가르침을 더욱 자세하고 분명하게 풀이하곤 했다.

5. 케레사를 방문하다

151:5.1 (1694.6) 군중이 그 주 내내 계속 불어났다. 안식일에 **예수**는 서둘러 산으로 갔지만, 일요일 아침이 다가왔을 때, 군중이 돌아왔다. **베드로**가 설교한 뒤에 **예수**는 오후에 일찍 말씀했고, 말씀을 마치자 사도들에게 말했다: “내가 군중에 지쳤으니, 우리가 하루를 쉬도록 저편으로 건너가자.”

151:5.2 (1694.7) 호수를 건너가는 길에 그들은 사납고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는데, 이것은 특히 해마다 이 계절에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었다. 이 수역(水域)은 해면 밑으로 거의 210미터이고, 특히 서쪽은 높은 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호수로부터 산으로 이르는 가파른 골짜기들이 있었다. 낮 동안에 호수 위에서 수직(垂直) 기류를 타고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옴에 따라서, 해가 진 뒤에 골짜기의 식어가는 공기가 호수 위로 급히 쏟아져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 강풍은 재빨리 오고 때로는 똑같이 갑자기 사라졌다.

151:5.3 (1694.8) 바로 그러한 저녁 강풍이 이 일요일 저녁에 **예수**를 맞은편으로 실어 나르는 배를 낚아챘다. 새 전도사 몇 사람을 실은 다른 배 세 척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 서쪽 물가에는 폭풍의 증거가 도무지 없었고, 이 폭풍우는 호수의 이 지역에 국한되었는데도 심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물결이 배 위를 넘실거리기 시작했다. 사도들이 뜻을 말 수 있기 전에, 센 바람이 뜻을 찢어 버렸고, 2.4킬로미터가 조금 넘게 떨어진 해안으로 힘들여 저어가는 동안, 그들은 이제 노에만 전적으로 매달렸다.

151:5.4 (1694.9) 그동안에 **예수**는 머리 위의 작은 해 가리개 밑에서, 배의 고물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벧세다**를 떠났을 때 주는 지쳐 있었고, 쉬려고 그들에게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그를 싣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 왕년의 어부들은 힘이 세고 노 젓기에 노련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일찍이 만난 가장 사나운 강풍 중의 하나였다. 바람과 물결이 배를 마치 장난감 배처럼 이리저리 던졌어도, **예수**는 꿈쩍 않고 계속 자고 있었다. **베드로**는 고물 가까이 바른편 노를 저었다. 배가 비로소 물로 차자, **베드로**는 노를 놓고 **예수**에게 달려가서 깨우려고 세차게 흔들었다. 그가 깨어나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여, 우리가 사나운 폭풍 속에 있는 줄 모르시나이까? 우리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죽으리이다.”

151:5.5 (1695.1) 빛속으로 나왔을 때 **예수**는 먼저 **베드로**를 보았다. 다음에 애써서 노 젓는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들여다보면서, 흥분하여 아직 자기 노로 돌아가지 않은 **시몬 베드로**를 얼른 돌아보고 **예수**는 말했다: “어찌하여 모두가 그리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조용히. 조용히 하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 꾸지람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평안을 찾으라 명하자마자, 그때 휘저어진 공기가 균형을 찾고 나서 가라앉아 아주 고요해졌다. 성난 물결은 거의 즉시 가라앉았다. 한편 검은 구름은 짧은 소나기에 힘을 소모했으므로 사라지고 하늘의 별들이 머리 위로 빛났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한, 이 모두가 순전히 우연히 일어났다. 그러나 사도들, 더군다나 **베드로**는 결코 이 사건을 자연의 기적으로 여기지 않은 적이 없다. 모든 자연이 영 세력과 초자연 존재들이 직접 지배하는 현상이라고 굳게 믿었으므로, 그 시절의 사람들이 특히 자연의 기적을 믿기가 쉬웠다.

151:5.6 (1695.2) **예수**는 그들의 불안한 정신을 향하여 말했고,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자연에게 그의 말에 복종하라 명하지 않았다고 열두 사도에게 분명히 설명했다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모든 일에 자기 해석을 붙이기를 고집했다. 이날부터 계속, 그들은 고집하여 주가 자연력에 대하여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베드로**는 어떻게 “바람과 물결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 결코 지치지 않았다.

151:5.7 (1695.3) **예수**와 동료들이 호숫가에 닿았을 때는 늦은 저녁이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기 때문에, 모두 배에서 쉬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고 조금 지났을 때까지 물가로 가지 않았다. 거의 40명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는 말했다: “**아버지** 나라의 문제들을 우리가 숙고하는 동안, 저쪽 산으로 올라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자.”

6. 케레사의 미치광이

151:6.1 (1695.4) 호수의 가까운 동쪽 물가의 대부분이 건너의 산지까지 밋밋하게 비탈졌어도, 이 특별한 장소에는 가파른 산허리가 있었고, 호숫가의 어떤 곳은 호수로 깎아질러 내려갔다. 근처의 산허리를 가리키면서 **예수**는 말했다: “아침을 먹으러 이 산허리로 올라가서 어느 아늑한 곳에서 쉬고 이야기하자.”

151:6.2 (1695.5) 이 산허리 전부가 동굴로 덮였고, 이것들은 바위에서 파여진 곳이었다. 이 많은 구멍이 고대의 무덤이었다. 산허리로 중간쯤 올라가서 비교적 평평한 작은 장소에 작은 마을 **케레사**의 공동 묘지가 있었다. **예수**와 동료들이 이 무덤 터 가까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산허리의 동굴에서 살고 있던 어느 미치광이가 그들에게 달려왔다. 머리가 돈 이 사람은 이 근방에서 잘 알려져 있었고, 한때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서 어느 석굴에 갇혀 있었다. 그는 쇠고랑을 부순 지 오래 되었고 이제 무덤과 버려진 묘들 사이로 멋대로 돌아다녔다.

151:6.3 (1696.1) 이 사람은 이름이 **아모스**였는데, 정기적으로 미치는 증세가 있었다. 옷을 더러 찾아 입고 동료들 가운데서 제법 처신을 잘하는 기간이 어지간히 있었다. 생각이 멀쩡했던 이 여러 기간 중 하나에 그는 **벳세다**로 갔고 거기서 **예수**와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하늘나라 복음을 반쯤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곧 병세가 심한 국면이 나타났고 그는 무덤으로 달아났다. 거기서 신음하고 크게 울부짖었고, 그래서 어쩌다 만난 사람들을 다 두려움에 질리게 만들었다.

151:6.4 (1696.2) **예수**를 알아보자 **아모스**는 털썩 주저앉아서 외쳤다: “나는 당신, **예수**를 아오나 나는 여러 귀신이 들렸고 당신이 나를 괴롭히지 말기를 부탁하나이다.” 정기적으로 겪는 정신적 고통은 그런 때에 악하거나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가서 머리와 몸을 지배하는 사실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참으로 믿었다. 그의 병은 대체로 감정의 병이었다 — 머리는 크게 병들지 않았다.

151:6.5 (1696.3) 동물처럼 그의 발 밑에 웅크리고 있는 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는 손을 뻗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말했다: “**아모스**야, 너는 악귀가 들리지 아니하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좋은 소식을 이미 들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발작에서 깨어나라.”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심을 들었을 때, **아모스**의 지능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는 금방 제 정신이 들었고 정상으로 감정을 자제하였다. 이때가 되자 근처의 마을로부터 어지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위의 산지로부터 온 돼지 치는 자들 때문에 수가

불어난 이 사람들은 그 미치광이가 **예수**와 그 추종자들과 함께 앉아서, 멀쩡한 정신으로 자유롭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

151:6.6 (1696.4) 미치광이를 길들였다는 소식을 퍼뜨리려고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이 마을로 부리나케 달려가자, 서른 마리쯤 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작은 돼지 떼에 개들이 돌진하여, 벼랑을 넘어 바다로 대부분의 돼지들을 몰았다. 이 우연한 일이, **예수**가 계신 것과 그 미치광이가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된 것과 관련하여, **아모스**로부터 한 군대의 악귀들을 몰아냄으로 **예수**가 그의 병을 고쳤다, 그리고 이 악귀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당장 밑에 있는 바다로 곤두박질쳐서 죽게 만들었다는 전설을 낳았다. 그날이 저물기 전에, 돼지 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널리 퍼뜨렸고 그 마을 전체가 이를 믿었다. **아모스**는 아주 확실히 이 이야기를 믿었다. 불안한 정신이 가라앉은 뒤에 곧 그는 언덕의 벼랑을 넘어서 돼지들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 바로 그 악령들을 돼지들이 데리고 갔다고 언제나 믿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병이 영구히 나은 것과 크게 상관이 있었다. (**토마스**를 제쳐놓고) **예수**의 사도들 모두가, 그 돼지 사건이 **아모스**의 병이 고쳐진 것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믿은 것이 똑같이 참말이다.

151:6.7 (1696.5) **예수**는 찾고 있던 휴식을 얻지 못했다. 그날의 대부분, **아모스**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온 사람들, 악귀들이 그 미치광이한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에 이끌린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래서 겨우 하루 밤 쉬고 난 뒤에, 화요일 아침 일찍, **예수**와 친구들은 돼지를 기르는 이 이방인 대표단 때문에 잠이 깨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 가운데서 떠나라고 요구하러 왔다. 그들의 대변인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여,

우리한테서 떠나시고 당신의 선지자를 모시고 가소서. 우리는 그가 거룩한 분인 줄 알지만, 우리 시골의 신들은 그를 모르고 우리는 돼지를 많이 잃을 위험에 처해 있나이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닥쳤고 그래서 당신이 여기를 떠나시기를 비나이다.” **예수**가 이들의 말을 듣고 나서 **안드레**에게 말했다. “우리 장소로 돌아가자.”

151:6.8 (1697.1) 막 떠나려 하는데, **아모스**가 **예수**에게 그들과 함께 돌아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지만 주는 찬성하려 하지 않았다. **예수**는 **아모스**에게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라. 친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보이라.” **아모스**는 **예수**가 그의 불안한 혼으로부터 한 군대의 악귀들을 몰아냈다, 이 악령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을 빨리 죽게 몰았다고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데카폴리스**의 모든 도시로 가기까지 **예수**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외치면서 그는 멈추지 않았다.